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8호
1월 11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미검증 교파 및 단체와 교류·참여 금지

2020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덕담 주고받으며 사랑의 교제



사회 신재영 목사, 교단 2020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6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 대성전에서 교단 정책위원 및 실행위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임종재 목사 직전총회장, 유봉수 목사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증경총회장, 김중덕 목사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전 부총회장, 정의심 목사 부총회장, 이경진 목사 총무

각 국장, 각 위원장, 각 기관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무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사회,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정의심 목사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부용 목사는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케 하시며, 시대와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조용목 목사는 삼상 2:3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교단발전을 위해', '성령충만한사역을 위해'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직전총회장 임종재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증경총회장 이우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총회장 신재영 목사 인도로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회원 서로를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서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제68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오전 후 오후 1시부터 제68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어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



제68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임원배석

졌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진행된 실행위원회는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진수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기금 납부 현황 보고,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 복귀 청원 등 각종 결의사항 등이 처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총회원들을 비

성격적이며 예복된 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교파 및 단체와 부분별한 교류 또는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티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이 2월 3일(월)과 2월 10일(월) 총회본부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2020 전국 청년 연합수련회가 2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화성시 소재 헬몬산기도원에서 개최되는 내용과 2월 10일(월)과 11일(화) 실시되는 목사고시 안내 등의 사항이 보고되었다.



총회장 신년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재영 목사 새강교회 담임

현대의 위기는 불확실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는 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한 때입니다.

사지로 들어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도 끝 모르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는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와 다른 사람까지 망라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지처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한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갈 수 없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

리의 띠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두움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관심한 참수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는 눈꼽 만큼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관제 교회 몇 곳만 세워놓고 시종만 하고 한 편으로는 핵미사일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정부는 이 같은 북한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치만 보며 끌려만 가고 오히려 철물같은 안보에 자주 흡입을 내어서 저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약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6.25 당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존립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중요한 인생과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교단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 31:6)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구원’



조용목 목사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히 2:1~4)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동안 얻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한 것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는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신분으로 전락되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멸망 받아 지옥형벌에 처하게 되는 데, 인간은 지옥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한 여기시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는 말씀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형용한 것이 합당합니다.

셋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 받게 되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함께 지옥형벌에 처하게 되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누기복음 16장에 기록된 나사로와 부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는 동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가장 아리석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후를 때려갈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후를 때려갈까"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릇된 교리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릇된 교리와 교훈을 받아들여서 "후를 때려갈까"는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명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은 화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라며 "후를 때려갈까"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 정면 원한을 함께 복된 삶을 나누는 상생의 행위입니다.

둘째,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믿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내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예 22:18,19)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오는 "이같이 큰 구원"을 얻게 되면 가치관에 현재까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 등이 모두 한 정적이고 한시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가질 뿐임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제한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부요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영혼을 살리는 말 가득하기를

제68차 총회 제8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8회 임원회가 지난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청주 한소망교회(담임 정의섭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바탕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왕하 5: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말, 유익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신재영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부흥사회 실행기도회, 목대원 2019년도 하반기 계정학기, 2019년도 총회 신학교 목대원, 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2019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등의 행사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진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티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2020년도 시무예배 및 제68차 총회 4회 실행위원회 준비 및 점검, 해외선교사 한지인 전도사 목사안수 건, 목사고시 일정과 광주신학교 이사장에 왕성엽 목사, 학장에 최정식 목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한교연, 제9회기 조직완료 새출발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식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제9회기 임원과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조직을 완료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새 회기를 한자게 출발했다.

한교연은 지난 12월 29일(월)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에텐홀에서 제9회기 임원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식 및 2020년 사업계획 설명회 겸 임직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연합·연합·통합)과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에 충실하기로 다짐했다.

상임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김윤기 목사(영예회장)의 기도, 김동성 목사(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김종복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철호 목사(공동회장)가, '제9회기 한교연



사역을 위해' 조승현 목사(공동회장)가, '회원교단과 단체의 복음 확장을 위해' 주문규 목사(총무협 서기)가 각각 특별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군포제일교회 에스더 중장단의 특송이 있은 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숨겨진 진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39명의 공동회장 등 총 53명의 임원들에

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상임위원장 21명, 특별위원장 21명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제9회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했으며,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획홍보실장 김훈장로가 광고한 후 상임회장 원종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새해를 시작

세기총, 이주민봉사단과 함께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1월 6일(월)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 반석교회에서 세기총 임원들과 세기총 이주민희망봉사단(이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 노숙자 및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며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세기총은 매년 연말연시를 이주민 희망봉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지냈는데 새해에는 신년하례예배를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뜻 있는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는 세기총 임원과 이주민희망봉사단 및 자원봉사자들 약 30여 명이 함께 모여 진행했다.

어떤 일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

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며 이런 섬김을 통해 새해에는 아름다운 열매만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세기총은 신년하례예배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8~1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글로벌 자유평화통일기도회를 갖고 두달후에도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일공동체 32번째 '거리성탄예배'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 나눠



다일공동체가 지난해 12월 25일 청량리 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노숙인, 무의탁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32번째 거리성탄예배를 드렸다.

1988년부터 매년 거리성탄예배를 통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눠 온 다일공동체는 32번째 거리성탄예배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이번 거리성탄예배는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리핀다일공동체 원장 김상준 목사의 중보기도로 시작을 알렸다.

예배에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박종삼 전 월드컵전 회장, 남종현 (주)그레미 여명808

회장, 다일공동체 홍보대사 박성원 배우, 윤석화 배우, 그리고 새롭게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보성 배우 등이 참석했다.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인권선언문 19조를 내민들이 낭독하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창하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성 들어 준비한 월동키트와 방한복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500여 명의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월동키트는 (주)그레미, 배달의 민족,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30여 개의 기업과 많은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들이 모여 마련됐으며, 방한복과 사탕의 도시락, 핫팩, 양말, 장갑, 배워며, 간식으로 구성됐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위해 한양대학교 봉사단인 '함께한데'를 비롯한 약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지리산선교유적지 보존위해 힘써

(사)에터미-(사)지기선연, 협력 다짐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주)에터미 선교팀인 드림미 단원들이 방문해 이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며,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하 (사)지기선연)의 공동이사장인 인요한 박사의 한국 의료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선교로 시작한 복음 전파와, 조선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적 과정을 듣고, 연세의료관을 통하여 관해원, 세브란스 등에 관한 것을 관람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주)에터미와 (사)지기선연은 지난 3월에 공주에서 개최된 31절 전야제에서, 지리산



선교 유적지에 대한 영상을 본 박한길 회장이 (사)지기선연에 후원을 함으로 만남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18일 (주)에터미와 (사)지기선연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MOU 협약을 맺고 후원기로 하여, 지리산에 있는

선교 유적지 12재를 보수하는데 큰 도움이 길이 열렸다.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주)에터미 선교팀인 드림미(박한길 회장의 개인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설립) 단원들이 방문함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월드비전, 아프리카 잠비아 방문 희망 전달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배우 정겨운과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 통가를 방문해 가난에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배우 정겨운의 아프리카 통가 방문기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0분 KBS 바다 건너사랑'을 통해 방영됐다.



배우 정겨운은 지난 11월 잠비아 통가 지역을 방문해 생계를 위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만나 함께 일상을 보내고 희망을 전달했다.

아프리카 잠비아는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비율이 57.5%로 심각한 빈부

격차를 겪고 있는 나라다. 그 중에서도 통가 지역은 잠비아 중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아이들이 사골 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등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또한 열악하다. 또한 남성 중심의 문화로 교육에서도 남자 아동을 위주로 교육을 받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성차별이 뚜렷한 지역이다. 특히 여자 아동들의 경우 조혼 풍습으로 어린나이에 임신할 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배우 정겨운은 이번 방문에서 병으로 부모를 잃고 솥을 만들어 살아가는 마이클(11세, 남) 남매를 방문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마이클은 재작년과 작년 부모를 병으로 잃은 후 학교를 그만두고 솥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겨운은 마이클과 함께 장작을 파서 솥을 만들어 팔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교회의 건강성 지킨다... 제직훈련 세미나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오는 1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계바울부흥선교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 올림피아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선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모색했다.



이날 1부 예배는 황준의 목사 사회로 노병훈 목사의 기도, 문원순 목사의 설교, 기태영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의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남독, 김중석 목사의 광고, 문원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하여',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김중석 목사가 특별기도를 한 후 안건토 의시간을 갖고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바울부흥선교회의회는 2020년 첫 모임을 오는 2월 28일 갖기로 하고 폐회했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사장 정연철 목사)은 20여 년간의 청지기 제직훈련의 노하우를 담은 '나이롱 집사와 성전의 기동같은 제직'을 출간하고, 출판기념 세미나 겸 새해 청지기 제직훈련 세미나를 2020년 1월 16일(목) 서울중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층에서 연다.

'기동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금번 세미나는 주강사에 이효상 원장(교회건강연구원)이 '청지기 제직을 세우는 목적'을,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성정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을, 허영모

목사(광 태평양교회)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의를 한다. 이를 통해 청지기 제직훈련은 '교회의 건강성'과 '동역자'로서의 사명 감당에 중요함을 깨우친다.

이사장 정연철 목사(양산 삼양교회는 "이제 팀웍이다. 최근 건강한 교회들의 유형을 보면 팀웍이 좋다는 것이다. 팀웍이 좋다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일하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곳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청지기 제직 훈련 목회'인

데, 전국교회의 직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초청의 이유를 밝혔다.

청지기 제직훈련 세미나의 참가 대상은 직분자(성로, 권사, 집사, 권장, 기관임원·구역장·목장,속장)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담임목사님이나 부교역자, 사모님의 인솔로 참여하면 좋을 듯하다.

참가신청은 사전 등록시 1만원으로 부패식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연구원(02-747-8291), 분자(010-3171-6094)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고에 간절한 회개 촉구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2019년 송년기도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해 12월 23일(월) 오전 7시 양문교회(이승수 목사)에서 2019년 송년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박노섭 목사(실무회장 삼광교회)의 사회로 시작,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송년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 및 송년사에서 한해 동안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매일 개최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나라와 민족, 지역복음화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가일층 힘써 모이고 기도하는 회원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윽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조례안 철폐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과 이슬람 정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정책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 징계하셨던 것처럼 WCC 한국대회 이후 교회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해서 장로(후원회)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동천교회)의 고전 10:30-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전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더욱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양문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온재전 목사(공동회장, 광혜교회)의 사회로 열린 2부 보고회와 공지에서 먼저 분회지분위원 이명수 국회의원은 현시국의 참담함을 토로하며 교회가 기도해주시기를 당부하였고, 분회 고분 김소윤 감독(온양온전감리교회)은 시국강연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도발을 끊임없이 아니하는 북한과 혼란한 국내정세를 직시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의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기를 당부하였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성탄절기의 행사를 마무리하며 온양온전역광장의 성탄트리와 성미나눔의 행사와 천안기독교연합회와 연합으로 KTX천안아산역광장의 트리작업까지 협조해준 회원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1월 9일 신년하례회 때 모여 2020년을 향하여 한자게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서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부분과 교과서 왜곡문제들을 대처해가고 있는 가운데 12월 29일(주일) 오후 4시 온양온전감리교회에서 충남비전인문위원회 주회의 한국교회 기도의 날 충남지역 기도회에 적극 참석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가진 기도회에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황기식 목사(공동회장, 동산교회)의 기도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박자영 목사(지도위원, 큰빛교회원로)의 기도하고 '아산시성사회를 위하여' 서석용 목사(지도위원, 아산성결교회)의 기도에도 이어 '성령증 정책과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하여' 이은혜 목사(재무, 은혜교회)의 기도하고 아산시지도자를 위하여 이광로 목사(지도위원, 아산중앙침례교회)가 기도하였다.

기도회를 마치고 양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2019 송년회 모임 갖고 사랑의 교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해 12월 16일(월) 지방회 송년회를 충북 청원 세종스파텔에서 가졌다. 먼저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서희명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육백현 목사(소생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이분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창 28:10-1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지런 모습으로 우리

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며 "야곱의 인생을 3단계로 말할 수 있다. 야곱의 인생 1단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2단계는 죄의 대가와 내적훈련이며, 3단계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간다. 돌아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야곱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20년간 인생수업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함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나 은혜 베푸신 시간이나 장소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나 사건이나 장소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숙시켜 나가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회장의 송년회 인사말씀과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교단 및 지방회 산하 개교회와 부흥과 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증경회장 김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에는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진행으로 화목을 위한 가리사데 놀이, 초심으로 글자 만들기 등의 시간을 갖고 스피셜송, 비전의 특별시간으로 교회희망세우기, 재정후원으로는 하나님 사랑 순복음교회 강현 전도사가 지방회 내 두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을 후원, 순복음후영교회 김경준 목사도 한 교회에 3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어 2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권영무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오찬기도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돌아갈 때는 순복음후영교회에서 맛있는 된장과 청국장을 선물로 지방회 송년 모임에 참석한 분들에게 드림으로 아주 따뜻하고 은혜로운 송년회가 되었다.



필리핀 민도로섬 선교지교회 태풍피해 심각

도움의 손길 절실, 선교 위해 지원 요청

2019년 12월 25일(수)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31호 태풍 URSULA가 민도로섬 남부를 비껴가며 서북풍파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김성호, 양윤선 선교사의 전략적 망안족 선교지(불릴리카오 지역) 교회 5교회 중 3교회를 강타해서 목초 및 대나무 건물 구조의 교회와 부속건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2월 31일 현재까지도 정전 중인 상태여서 어떤 것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복음선교의

전략요충지인 이곳에도 생명의 씨앗이 트여지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 피해 교회명 및 피해상황 (불릴리카오 지역)
1. 신타르사교회(성도수: 50여 명)
· 피해상황: 교회 완파, 식당 완파, 현지목사 사택 반파, 가재도구유실, 인명피해 없음



2. 바라우교회(성도수: 80여 명)
· 피해상황: 교회 반파, 식당 완파, 목사관 완파, 인명피해 없음.
3. 반피교회(성도수 100여 명)
· 피해상황: 교회사당 반파, 천장 완파, 인명피해 없음
· 후원: 농협 321011-52-04412(양윤선)



십자가만 바라보는 주의 종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26일(목) 오전 10시 순복음성신교회(담임 허만운 목사)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먼저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총무 이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사회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가 고후 4:16, 5:1 말씀을 본문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의 종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성령충만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였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그 후 식사 장소인 횡집으로 이동하였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울진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면서 둘러보았고 고래볼 하우스에 들려 배경을 빗살아 단체사진을 찍

었다. 그리고 근처 바다에 위치한 카페에 들어가 치를 마시며 경치를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교제하였다. 그 후 각자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새해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1월 3일(금)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새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환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박영옥 목사(순복음장흥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황영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6:19-24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듯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세상의 재물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며 "가게 스바나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돌아 온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 2020년 새해 부산동지방회 회원들은 오직 예수께 마음을 두고 한 해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안병식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헌금기도와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념사진 촬영 후 순복음갈릴리교회 정영진 목사가 제공한 선물과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하례회 갖고 웃음으로 사랑의 교제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월 7일(화) 안성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서 신년하례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찬송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남수 목사(현문산교회)의 기도와 성별달 목사(궁촌중앙교회)의 성경봉독,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시 37:1-6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새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제목들이 율하는 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대



적으로는 좀 암울하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임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표현

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헌금기도와 서경오 목사의 광고에 이어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월례회를 통해 회무론은혜롭게 마치고 평강교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웃음이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홀몸노인 위한 진료

외국인선교회,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협력하여 의료선교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는 지난해 12월 15일(주일), 세계선교센터에서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및 홀몸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많은 외국인과 노약자가 주일예배에 참석한 후 선교센터내 진료실과 치료진료소를 찾아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소아

과, 치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건강 상담과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성껏 조제한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생명의 말씀



이광신 목사

· 교단 신학발전위원장 역임
· 청주지방회장 역임
· 청주야가페교회 담임

대화의 단절, 이것은 인류사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부터 참된 대화는 없어졌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자기 중심의 선악분별 즉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의심, 변명 책임전가, 시기 질투의 언어들로 변해버렸습니다(창 3:10-13).

가인은 어쩔습니까.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친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만의 언어, 즉 한 가지 언어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 역

시 대화의 단절, 그리고 언어의 불통으로써 민족대 민족의 이질감과 증오가 서로 흠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창 11:6-9). 그 때 이래로 우리는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간의 끊임없는 불화의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의사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행 2:8). 이 사건이야말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언어가 통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행 3:28).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어떤 언어 장벽도 무너져버리고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상적 대화와 창조적 대화입니다. 피상적 대화는 자기 마음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말을 해도 이기주의적인 편견과 고집이 가득할 때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8) 이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대화입니다.

1. 성령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때 그것은 창조적인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골 2:1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한다고 천국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 성령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요일 4:7-8).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복음)을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감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3-14).

동 정

한남대 신임 총장에 이광섭 교수



한남대학교의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이사장 우영수) 이사회는 화공신소재공학과 이광섭 교수를 제17대 한남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총장은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92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대학원장,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총총 '목회자 콘퍼런스'



제1회 한국교회 목회자 콘퍼런스가 오는 1월 14일(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일웅 한국교대니우스연구소 소장이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루카스국제학교, 심성우 학교장



전 세계 최초 의료특성화 대안학교인 ‘루카스국제학교’(이사장 구자용, 교장 심성우)가 미국 의대진학을 꿈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루카스국제학교’는 의사 누가의 제자를 전 세계 지역으로 파송해 치유의 선교,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 양육시키고자 문을 열었다.

김철영 목사 문체부장관상 수상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제언,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출산운동과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생명존중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건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올해는 함께 살고 같이 구함 받는 해가 되기를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움을 구하고 건강한 변화를 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이 가운데 1위가 공명지조(共命之鳥)로 함께 죽는다는 것이었다. 2위는 어목혼주(魚目混珠)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를 말한다. 또 3위는 반근작절(盤根錯節)로 뿌리가 많고 마디가 이리저리 얽혀있다는 것으로, 역시 혼잡을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준도 없고, 상식도 사라지고, 미지노선도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초강등과 초긴장에 순리를 따르지 않고, 많은 일들이 역류(逆流)하는 듯한 모습을 본다.

올해에는 4월에 종선이 있어 독행기시(獨行其是)가 일어날 소지가 더 커졌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한 대립의 시대가 되기를 염려한다. 그러나 이런 독선과 대립은 공멸로 갈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공동운명체로 살아가고 있다. 이슬 우화에 보면 개구리와 쥐가 친구

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쥐를 자신의 발에다 묶고 마치 선행이라도 하듯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쥐는 곧 익사하고 말았다. 죽은 쥐의 시체를 보고 공중에서 매가 날째게 날아 내려와 낚아채니, 쥐의 발목에 묶여 있던 개구리도 같이 매의 발에 되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는 올해 함께 살고 같이 구함 받는 공명지조(共命之鳥)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설피고, 분열을 조정하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와 섭리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서 이끌어 가심을 믿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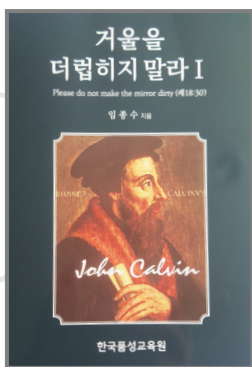
사람이 우선이라면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아니겠는가?

울고 그른 소리에 관계없이 상상과 화합의 목소리만 외치는 이들도 완전하지 못하며, 반드시 나만 옳다는 독선도 문제이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일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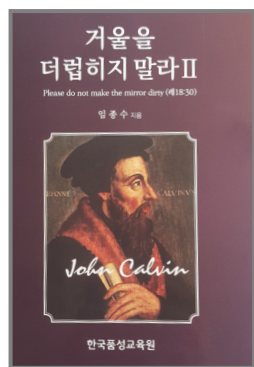
교회들도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화합과 선행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여, 주님 나라 확장과 의를 이루 기는데 하나가 되며,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날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라”(시 102: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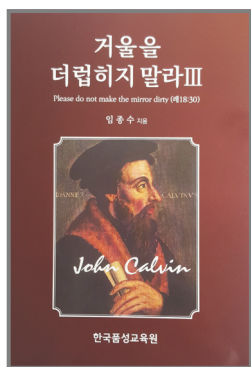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건강한 가정파괴 법안 즉각폐기 촉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019년 12월 30일(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이하 개정안)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여 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위헌 위법적이고,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이하 개정안)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여 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처음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2015년도 역시 같은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만 인정하고 성적지향(동성)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개정안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경기도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과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는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과 분명히 다르다. 생물학적 성의 양성평등 기반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학적 성의성평등 기반의 가정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율리가 무너진다.

개정안은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한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교회를 포함한 일반 사업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대응대책단이 성별 정의에 '생물학적'이란 단어를 추가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지는 재개정안을 제의했지만 경기도 의회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이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며, 경기 도민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 폐지를 위한 겨울레트 농성을 시작한다. 악의적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 12. 30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총신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총신대 성회통·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관련 법률 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쳐서 이사회 교수 사안은 성회통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관선이사로 구성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성회통 대책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기로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 협의회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최근 총신대학교는 성회통·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반대강연을 한 이사회 교수의 강의가 성회통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쳐서 이사회 교수 사안은 성회통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바 있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성회통 대책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기로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의(한동협)는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관선이사회로서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입장문]
이사회 교수 건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재논의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총신대학교는 성회통·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반대강연을 한 이사회 교수의 강의가 성회통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쳐서 이사회 교수 사안은 성회통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바 있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성회통 대책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기로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의(한동협)는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관선이사회로서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이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 이사 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총신대와 관련한 정책과 결정이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우에 그 판단과 결정을 최소화해야 할 이 때문이다.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특성에 배치되는 경솔한 판단과 결정을 할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이사회 교수 사안과 관련하여 이 우려가 아래와 같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협력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동성애조장 반대 정책의 모든 업무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한동협은 깊은 우려를 가지며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26.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이단을 경계하라

신재영 목사 // 새김천교회, 예하성 총회장

방울뱀의 맹독 같은 이단(異端)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3-15)

방울뱀의 독은 대부분 혈액 내의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용혈성 독이나, 종에 따라 독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은 몇 시간내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편이며, 어떤 종은 물릴 경우, 접촉한 생체조직을 급속도로 괴사시키는 독이 있고, 물린 후 몇시간 내로 순식간에 피부, 혈관, 근육은 물론 심지어 뼈 조직까지 파괴하며 진행하기에 치유 불가능한 손상을 남기며, 또 어떤 다른 종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있는데 2-3시간 내로 전신 마비를 일으키면서 물린 자리로 부터 천천히 전파되어 폐나 뇌에까지 퍼져버리면서 죽음을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불일이 있어서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도 기막힌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맹독을 가진 방울뱀이 집안으로 들어와 그 만 어린 아들을 물어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출자에 아들의 주검 앞에서 거의 미칠 지경이던 선교사는 도끼를 가져다가 그 방울뱀 목사를 찢고 또 찢어서 아주 형체를 알 수 없도록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안으로 들어온 강아지가 그 방울뱀 토막을 혀로 한 번 핥는가 싶더니 잠시 후 온 몸을 부르르 떨며 죽어 갑니다. 방울뱀이 맹독을 가졌기에 죽은 후에도 독이 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며 따르는 이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울뱀과 같은 존재물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전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이단 사상의 맹독성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돌아올 수 없으며 영원히 멸망받는 길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독을 가진 방울뱀이 애초에 방울을 흔들어 대는 것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말해 ‘나 여겨 있으니가 다가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방울뱀 소리가 들린다면 예시당초에 그 쪽으로 다가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각종 거짓 이단이 다가올 때에 그들의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말을 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대 가까이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방울뱀에게 일단 물리면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단의 그럴싸한 거짓에 미혹되는 순간, 방울뱀 맹독에 물리는 것과 같으며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이 1:7-11)

한교연 노숙인들과 함께 2020 신년하례회

서부역 참좋은친구들에 사랑의 쌀 1천kg과 급식후원금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월 3일(금) 오전 11시 서울 서부역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사참좋은친구들 강당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에 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한교연 임직원 등 50여 명과 400여 노숙인들이 함께 한 신년하례예배는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바울 목사가 대표기도한 후, 박만수 목사(공동회장)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박종철 목사(나라사랑위원장)가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홍정자 목사(공동회장)가 ‘한교연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 김병근 목사(회계)가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후 총무협 회장 진동은 목사가 성경(벧전 1:22-25)을 봉독한 후 군포제일교회 마리아중창단이 특송하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하고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50년 전에 이 근처 염천교를 지나다 꿀꿀이죽으로 한 끼를 때운 적이 있다”고 회상하고 “그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 그런 걸 누가 먹겠느냐”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스스로 비교함으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다”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수 교대 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20 신년하례

대표고문



조몽목 목사
정적위원장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재천수복을양로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성식 목사
순복을복원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을진리교회

부회장



김건수 목사
재주한미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을참좋은교회

일 시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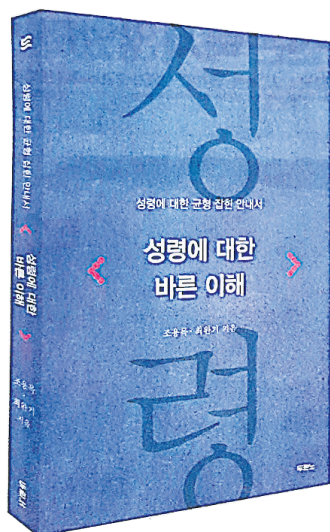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가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신년 축복성회

강사진

27
일(월) 저녁정석현 목사
평강교회28
일(화) 새벽임형순 목사
마연교회28
일(화) 오전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28
일(화) 저녁김인찬 목사
청신교회29
일(수) 새벽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29
일(수) 오전기호선 목사
파산순복음교회29
일(수) 저녁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강원교회30
일(목) 새벽오세준 목사
순복음광릉교회30
일(목) 오전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30
일(목) 저녁신재영 목사
새길전교회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김기진 목사

일시

2020년 1월 27일(월)~30일(목)

새벽 5시 · 오전 10시30분 · 저녁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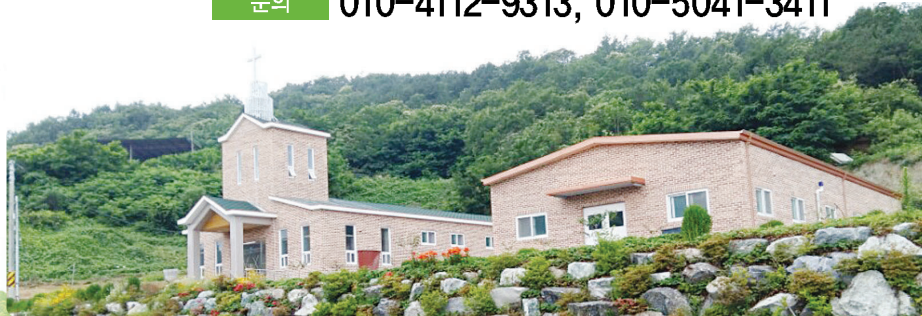
장소

혈문산교회·기도원(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

문의

010-4112-9313, 010-5041-341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제2회 문학상과 2019신인상 등단

박영률 목사 “척박한 문학계에 새 바람 일으켜 줄 것” 당부

격려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에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인들을 새로이 발굴 배출하는 한편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및 제2회 문학상과 신인상 등단 축하 모임이 문학 선후배 동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난해 12월 30일(월) 오후 4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마포문화원에서 열려 시인, 동시인, 동화작가, 수필가, 소설가 등 12명을 문단에 내놓았으며 문학상수상자로는 소설가 박종규, 시인 홍영철, 아동문학가 이창식 님이 영예의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김삼중 시인의 사회로 시작되어 발행인 박영률 박사의 내빈소개 및 개회인사, 김봉균 박사의 인사말씀, 작가회 대표회장 조운과 작곡가의 환영인사, 심사위원장 유승우 박사의 문학상 및 신인상 심사평, 신유하 선생의 축시낭송, 소설가 박종규, 시인 홍영철, 아동문학가 이창식 님에게 대상 시상식이 김봉균, 유승우, 김종창 박사의 증정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대상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이 있었으며, 신인상을 받게된 수상자들에게 박영률, 조운과, 정지홍 박사가 격려와 함께 신인상 등단패를 수여했다.



신인상 수상 대표자 조정옥 님의 등단소감, 조진권 박사와 연가원 고분의 격려사, 이광복 이사장과 손해일 이사장의 축사, 박종규 소설가의 하모니가 축주, 박성태 성악가의 축하, 진행자 김삼중 시인의 광고 및 폐회 선언으로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발행인 박영률 박사는 ‘하

나로선 사상과 문학’을 통해 새로운 문인들을 발굴하고 등단한 문인들이 왕성한 작품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에 깊이 감사드리고 척박한 문학계에 새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당부하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화계의 선배, 동료 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

2월 29일(토) 사랑나눔 문화축제로 열린다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7일(화) 코리아나 호텔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사랑의 나눔문화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회의 성격은 취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에 담고(제2조 제3호)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며, 사회적 성인 수십 가지 성을 가진 개념인 ‘젠더’를 인정하게 되어 큰 혼란과 재앙이 찾아온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자와 혐오자로 낙인찍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되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된다.

다음으로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위헌으로 봄)를 결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그 생명은 태내에서 임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생명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5대 중독자가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중독이 겹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 원에 이르며, 2018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라 만들어 가자고 재언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2월 29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백만국민대회와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교육과 청소년을 위하여 사랑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대변인 주요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련 영상을 보고, 대화장 유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인사말, 대변인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인문학 사무총장)의 취지와 목적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준비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합기도회)의 연합기도회와의 연대 설명,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의 대회 내용 설명, 전문위원 김영길 목사의 백만국민대회 설명, 여성위원장 김수진 대표의 사랑행진 설명, 서명위원장 서승원 목사의 천만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대하여 김정선 감독의 설명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문제, 전문위원 이명진 원장의 낙태반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성명서 낭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지영준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부대변인 나혜정 대표의 낙태반대, 부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의 중독 예방에 대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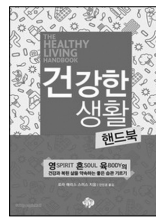
참 신앙과 거짓 신앙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마 7:23). 물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겉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고 분별이 있어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믿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선명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정곡을 찌르는 질문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 그리고 묵화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저자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

저자 : 김형익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19-12-16 | (150*220)mm 360p | 판매가 : 18,000원

건강한 생활 핸드북



사람들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의 유행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영·혼·육을 분리하여 각각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유행하는 식이요법으로는 체중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고, 단순한 관계 개선만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영의 문제를 풀 수 없다. 건강 전문가이자 공인 영양 상담사인 로라 해리스 스미스 목사는 복잡한 식단과 운동을 초월하여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건강 관리법을 알려 준다. 전인건강을 위한 정보 요약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역자 : 로라 해리스 스미스/안민경 | 출판사 : 순전한 나드
발행일 : 2020-01-03 | 신국판 272p | 판매가 : 15,000원

주의 길을 가려면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 부흥보다는 수적 부흥에 몰두하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는 자숙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에 장동락 목사는 올바른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가까이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된 주의 종이 되려는 자는,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외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우치고, 신실한 성도가 되려는 자여, 『주의 길을 가려면』을 펼쳐라! 『주의 길을 가려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참된 교인의 길을 제시한다.

저자 : 장동락 | 출판사 : 좋은땅 | 발행일 : 2019-12-24
| (152*225)mm 276p | 판매가 : 12,000원

내가 왕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위인전에는 한 인물의 장점과 배울 점들만을 기술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면면들은 잠시 접어두고 한 인물의 긍정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싶은 어른들의 바람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은 그 인물들이 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들의 빛과 어둠을 보여주며 빛 속을 걸어간 이도 어둠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이도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 : 이익상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1-09
| (150*210)mm 296p | 판매가 : 15,000원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시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시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몸짱 산타들의 “장기기증 캠페인”

30여 명의 트레이너들, 자발적 참여로 의미 더해

시령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1시 명동 중앙로에서 이색적인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장기기증인들의 숭고한 나눔을 기억하고,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퍼레이드는 55회째를 맞이한 올해 가장 많은 트레이너들이 참여해 생명 나눔에 동참하지는 못소리를 전했다.

행사에는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몸짱’ 열풍을 불러온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인기 연예인들의 스포츠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건강 전도사’ 아놀드 황을 비롯해 30명의 남·여 트레이너들이 참여했다.

특 biệt 이 번 거 리 캠페인에는 몸짱 캐리커로 KBS2TV 개그콘서트와 각종 방송에서 남다른 근육을 자랑해온 개그우먼 김혜선도 함께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도 참여했다.

55회째 이 행사를 함께 해오고 있는 본부 홍보대사인

아놀드 황은 “명동 산타 거리캠페인이 벌써 55회째를 맞아 기쁘고 뜻깊다”며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이 행사가 올해는 무려 30명의 트레이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장기기증의 의미를 전하게 돼 감격스럽다”는 참여 소감을 전했다.

산타로 변신한 참가자들은 영하의 온도 속에서 상반신을 털어낸 채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을 뜻하는 상징인 ‘초록리본’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등 장기기증 관련된 각종 이미지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명동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이 함께 ‘생명 나눔’이라고 적힌 풍선을 들고 명동 중앙로를 따라 내려오며 ‘크리스마스에는 소외된 장기부전 환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크리스마스에는 장기기증 서약해요’ 등의 문구가 적힌 파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CTS기독교TV 신년 특집 프로그램 안내

창사 25주년 기독교TV ‘주님의 신부’, ‘7000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선보여

국내든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한 영상선교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온 CTS가 창립 25주년 청년 CTS로 거듭나며,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CTS특선다큐멘터리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살아온 천보산 민족기도원장 우정재 권사의 일대기를 그린 CTS 특집다큐멘터리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가 제작됐다.

서울 태릉 불암산 중턱에 위치한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설립자 우정재 원장의 일대기를 다룬 이번 다큐멘터리의 출연자 탈린트 김민정 씨는 “우 원장의 삶을 재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실제 우정재 권사의 자료와 대본을 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정재 권사의 신앙 간증과 기도원 설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는 1월 1일(수) 저녁 6시에 CTS



에서 방송되었다.

〈방송시간〉
본방 / 2020년 1월 1일(수) 저녁 6시
재방 / 2020년 1월 4일(토) 밤 10시
삼방 / 2020년 1월 6일(월) 새벽 3시

7000미라클 “다음세대와 함께 매달 첫째 주간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7000명의 기도용사가 모여 아름다운 기적을 만드는 〈7000 미라클〉은 창사 25주년을 맞아 매달 첫째 주간을 ‘다음세대’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세대와 관련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열방의 선교사 사역을 소개하는 〈열방을 향하여〉에서는 1월 6일(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강성 지역인 데콰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아이(페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을 복음 안에 세우고 있는 오성화 선교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오지와 미개척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평결으로〉에서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꿈의 학교’를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은혜의숲교회 이시호 목사의 사역을 1월 7일(화) 방영했다.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후원하는 〈예수사랑 여기에는〉는 뇌병변 장애 오미현(4세) 어린이 사연이 생방송으로 1월 8일(수) 방송으로 소개되었다.

복음의전함, 검은대륙 아프리카 상륙

남아공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전개

‘검은 대륙’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심는 복음광고가 세워진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정로)이 5개 대륙을 순회하며 세계의 주요 도시에 복음광고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이 오는 2월, 마지막 6번째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복음의전함은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에서 ‘It’s Okay! with Jesus(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라는 주제로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6차 아프리카’를 진행한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사복음의전함이 주최하고 아프리카한국교회협의회와

중남부아프리카선교사회가 주관한다.

이번 캠페인 마지막 목적지인 남아공은 기독교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 교회들과 성도들은 토속신앙과 미신, 이단의 확장 등으로 얼룩져 있다.

오랜 인종차별, 가난 등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프리카인에게 무엇보다 진정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남아공에 세우는 복음광고는 현지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번 아프리카 캠페인에서는 남아공 수도권인 하우렐주 경제중심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형 빌보드 복음광고를 걸고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해돋는마을, 성탄절 사랑나눔잔치…소외된 이웃 도와

따뜻한 사랑과 감동의 시간 가져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정한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이 엘드림노인대학(학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회장 김효석)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3일 엘드림노인대학강당에서 독거어르신을 초청 성탄절 사랑나눔잔치를 개최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녀는 때보다 힘든 이 시기에 성탄의 기쁨을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며 희망을 잃지 말고 더욱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한일 이사장은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해 주신 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일을 맞은 네 분의 어르신들께 선물과 함께 생일케이크 전달식도 가졌다.

한편, 엘드림노인대학은 매주 6회 나눔사역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생명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피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눈물과 땀 치르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가족세트전도

예수생명 전하기 위해
죽음도 각오하고
목숨 바쳐 헌신을 다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온 세계위에
널리 널리 전하여 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라
우리 선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하여지고
전도의 씨앗을 낳았다.

전도는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전도는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노라.

그피 흘린 댓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소중한
아찌아찌 감사지 않을 수 있으랴.

부름 받아 사명감당하는
박영수 목사님 평내순복음교회 위해
특히 전도사역위에 그 모든 사역 위에

—너는 내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 주여 불들어 주소서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능력주소서,
함입어 복음 전하리이다.
어디든 가오리이다
오지라도 가오리이다.
호롱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가오리이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세계 만방에 전하리이다.
복음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암울한곳에까지
널리 널리 울리소서.
울리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박 목사님의
그 선행 사역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
만유주 여호와께
돌리소서 돌리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사역
불철주야 이랑곳없이
복음의 종소리는
계속 울리누나
울리누나.

시안: 아수 교수 / 경찰방송MC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잇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202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 연합 동계수련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 12:1

일시

2월 13일(목) ~ 15일(토)

장소

혈몬산교회·기도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문의

010-5041-341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삶의 구비 구비 속에
쌓여만 가던 불음표의 행렬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어있던 불음표의 매듭들이
내 마음의 창공에서 날갯짓을 하며
느낌표로 변케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인생의 불음표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삶을 느낌표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쉽표의 평안 길로 날 인도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본향으로 향하는 날
처음이었 나중이 되신 그분을 만나는 날
내 삶의 마침표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전파 다짐

선교사자격증 수여식... 김용국 대표, 복음의 사명 감당해 줄 것 당부

호프월드미션(대표 김용국 선교사)은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충정로 소재 동 선교센터에서 월요선교학교(MMS) 수료식을 갖고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김용국 선교사는 행 1:8 말씀

을 본문으로 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제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고,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대표회장 한인수 장로는 축사 및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오늘 문화선교사 자격증을 받는 여러분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소정의 절차를 거친 수료생들에게는 문화선교사 2급 자격증과 MMS 수료증이 각각 수여됐으며 수료생들은 수료소감을 통해 "이곳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선교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수료생들은 이튿날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한편, 호프월드미션은 오는 2020년 2월 3일부터 훈련을 온라인 강의도 신설해 온·오프라인 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희망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철저히 가리워진 북한을 상대로 한 평화 환상을 버리고,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한다. 평화 경제도 비핵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러와 대북 제재 완화 공조에 나서는 것은 북핵 보유를 거드는 일이다. 정부는 대북 인식 오류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한·미 연합 훈련 재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실질적 핵 전면 폐기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미국이 경제 태세를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집중하자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제재해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일깨워 주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두 나라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데다, 제재에 일단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폐기가 '답보'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조성된 안보 불안감이 군내 기강해이와 북한 아선이 아무 제재 없이 한국 해안에 상륙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노출됐고, 미국의 요구로 한국전쟁 이후 유지됐던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는 등 안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북한이 핵 보유 고수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위장막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쉽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핵무장을 노골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은 북핵 및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왔고 불신도 쌓였다. 이제 미·이란 충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동맹의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각론 부분에서는 정교하게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맹을 축으로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가 진정한 외교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실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유사시 미국이 동맹공약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과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과 관리들은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접근했지만,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남한'이나 '남북관계'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억제력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결정하지 못하였듯이 힘이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번의 사태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올레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느님은 오직 우리의 몫이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정부를 바로잡고 시민이 옳은 목소리를 내도록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감으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간구해야 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 31:6)" "민심이 곧 찬삼"이라는 진리의 중재자가 교회로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적 소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교회와 국민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노력을 통해 지난해 한국을 덮었던 절곡을 점차 걷어내고 희망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인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11)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사무총장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윤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서기 정진화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박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신년축복기도성회, 하나님을 앙망하며 복된 새해 기원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신년축복기도 성회가 지난 1월 1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려져,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신년의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

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에 진력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이날 성회는 장로성가단과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어 1부 기도회에서

는 이역주 목사(대석교회)가 각각 '임마누엘의 복'과 '하나님을 존귀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진 3부 기도회에서는 당회장 조용목 목사가

'기도'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성도들은 각종 은사 체험과 성령충만한 생활을 위해, 자유대한민국과 북한 동포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개인의 갖가지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하여 더욱 주의 일에 합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0년 2월 10(월) ~ 11(화) 오전 10시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타교단가입자 연수교육

- 일 시 : 2020년 2월 3일(월), 2월 10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장 소 : 총회본부
- 문 의 : 02)2677-0692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2020년 부흥사회 신년축복성회

1.13(월)	1.14(화)	1.15(수)
오후 2시	최정식 목사 - 예하성 부흥사회 부회장 - 순복음 복원교회 담임	오세준 목사 - 예하성 부흥사회 총무 - 순복음 참좋은교회 담임
오후 7시	신재영 목사 - 예하성 총회장 - 새김천교회 담임	김기진 목사 - 예하성 부흥사회 회장 - 제천 순복음 영문교회 담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빛된교회